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75>

JCCT 2023-1-10

창업의 지각된 가치와 위험이 예술전공 대학생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Risk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rt

김혜진*, 정지복**

Hae-Jin Kim*, Jibok Chung**

요약 본 연구는 창업의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이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모·형제의 창업경험과 세부전공에 따른 창업의도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의 지각된 가치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의 지각된 위험의 구성요인 중에서 재무적 위험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위험요인과 경력 위험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계열의 세부전공 중에서 공예전공 대학생은 다른 전공에 비하여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형제의 창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하여 창업의도가 높으며 부모·형제의 창업경험 유무는 창업의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지각된 가치, 지각된 위험, 창업의도,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risks of start-up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he arts, and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rt-up experience of family and the degre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ccording to the sub-major. Studies have shown that the perceived value of a startup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of starting a business, and among the perceived risk factors of a startup, financial risk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but social risk factors and career risk factors do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addition, among the sub-majors in the art department, the craft major was found to have a higher entrepreneurial intention than other majors, and college students who indirectly experienced the start-up of their family had higher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an college students who did not,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entrepreneurial experience of family had a modul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value and the perceived risk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Key words : Perceived Value, Perceived Risks, Entrepreneurial Intentions, Moderating Effect

*정희원, 공주대학교 도자문화융합디자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1월 21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November 21, 2022 / Revised: January 4,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jbchung@kongju.ac.kr

Dept. of Retail Management, Kongju National Univ, Korea

I. 서론

보다 많은 경제적 수입과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청년세대의 선호도 변화에 따라 MZ세대 미취업 청년의 72.6%가 창업의사를 가지고 있다[1]. 그러나 예술전공 대학생의 경우 공학계열 대학생에 비하여 대학생 창업률이 높지 못한 현실이다[2]. 최근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을 찾기 위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많은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3-5]. 본 연구에서는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으며 부모·형제의 창업경험과 세부전공에 따른 창업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은 창업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창업의도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3장은 제안하는 연구모형과 본 연구주제로 설정한 가설에 대해 설명한다. 4장은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연구결과, 시사점 그리고 한계점은 5장에서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가설

1. 예술전공 대학생 창업

예술인 창업은 예술가의 예술작품 혹은 예술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으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창업과 다르게 예술과 창작 사이에서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균형적으로 창출해야 하는 새로운 개념이다[6].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연예술 전공 대학생의 혁신성과 위험 감수성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기 효능감은 혁신성과 위험 감수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3, 4]. 또한, 예술전공 대학생의 주관적 규범과 창업 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창업교육 지원은 주관적 규범과 창업 의도의 관계를 조절하고 창업활동 지원은 주관적 규범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5]. 본 연구는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의도를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

지각된 가치는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변수 중의 하나이다[7]. 창업동기 또는 창업기회 인식은 창업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 예술적 성취감 그리고 사회적 명예 등의 지각된 가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창업에 대한 지각된 가치가 클수록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변수로 선택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8].

2.1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EV)

창업은 실패에 대한 위험과 경제적 이득이 동시에 존재하며 경제적 이득은 창업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motivation)이다[8]. 경제적 이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고,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과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미래에 기대되는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며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9]. 따라서 경제적 가치는 창업의도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변수로 선택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2.2 예술적 가치(artistic value, AV)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 아이템은 창작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순수예술을 지향하던 대학생이 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창작품을 통해 본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예술적 재능과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업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지각하고 창업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술적 가치를 연구모형에 새롭게 추가하였다[6].

2.3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10]. 창업을 개인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창업의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변수로 선택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10].

3.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

위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의미하며 손실의 크기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도에 따라 지각된 위험은 달라진다[11]. 창업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대학생의 경우는 창업과정의 불확실성이 크며 창업실패로 인한 손실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지, 기업가정신 유지,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창업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2]. 또한, 창업가의 인지편향과 지각된 위험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지각된 위험은 창업기회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따라서 창업 실패로 인한 위험 요소는 창업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변수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각된 위험을 재무적 위험, 사회적 위험, 경력 위험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4].

3.1 경제적 위험(financial risk, FR)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자금 투자가 요구되며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투자가 수반되기도 한다. 창업실패로 인한 투자금의 손실 위험은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선행연구에서도 창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험이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15].

3.2 사회적 위험(social risk, SR)

창업실패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을 준다. 선행연구에서도 (예비)창업자는 창업실패 자체뿐만 아니라 창업실패로 인해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후속적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따라서 사회적 위험 정도를 크게 인지할수록 창업의도는 낮을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변수로 선택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3.3 경력 위험(career risk, CR)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예비)창업자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게 된다. 진로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는 대학생의 경우 창업을 선택하고 창업활동에 몰입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취업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직업 선택 시, 미래의 발전 가능성과 자기개발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생일수록 창업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16]. 취업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의 경우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할 것이며 경력관리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변수로 선택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4. 창업 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s, INT)

창업 의도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도이며[17],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이다[18]. 한편, 창업 의도는 기업가와 관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19]. 국내에서도 창업 의도의 선행변수를 찾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창업실패 두려움 중 재무적 손실 두려움이 창업 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창업자의 내적 요인(자금조달능력, 위험감수성)과 외적요인(창업환경,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와 성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21].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설문조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대전·대구·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convenience sampling) 방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2년 9월~10월이며 총 235부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부실한 5부를 제외한 230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과 가설검증에는 SPSS 27.0을 이용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과 창업의도를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간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예술전공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적 가치를 연구변수로 추가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의도를 종속변수, 창업의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각된 가치는 경제적 가치, 예술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세부구성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지각된 위험은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경력 위험을 세부구성요인으로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그림 1과 같이 가설 H1~H4를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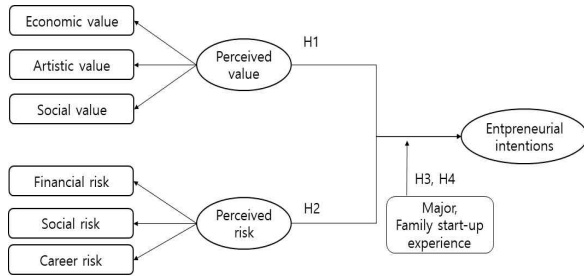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 H1: 창업의 지각된 가치는 창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1-1 창업의 경제적 가치는 창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1-2 창업의 예술적 가치는 창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1-3 창업의 사회적 가치는 창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 창업의 지각된 위험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1 창업의 경제적 위험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2 창업의 사회적 위험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2-3 창업의 경력 위험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 H3: 부모·형제의 창업경험 유무에 따라 대학생 창업의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 대학생 세부전공별로 창업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66명(28.7%), 여학생은 164명(71.3%)으로 전공분야 특성상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의 74명(32.2%)은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응답자의 126명(54.8%)은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고 모르단고 응답자는 30명(13.0%)이었다. 응답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4학년 및 졸업생 비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세부전공은 “공예(33.0%)”, “디자인(20.9%)”, “순수

미술(20.9%)”, “미디어(12.2%)”, “음악(9.6%)으로 나타났다. 부모·형제 중에 창업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0명(30.4%)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진로에 대해(복수응답) 취업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72명(34.3%), 창업을 고려하는 응답자는 121명(57.6%), 창작활동 희망자는 143명(68.1%)으로 나타나 전공 관련 작품활동을 희망하는 응답자 가장 높았지만, 진로보다는 창업을 고려하는 응답자가 높게 나타나 예술전공 대학생이 창업에 관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본 230명)
Table 1. Demographic profile (n=230)

성별	빈도	%	창업교육 경험	빈도	%
남성	66	28.7	있음	74	32.2
			없음	126	54.8
여성	164	71.3	잘모름	30	13.0
학년	빈도	%	세부 전공	빈도	%
1학년	44	19.1	음악	22	9.6
2학년	50	21.7	순수미술	48	20.9
3학년	68	29.6	공예	76	33.0
4학년	40	17.4	미디어	28	12.2
졸업(예정)	28	12.2	디자인	48	20.9
			기타	8	3.5
부모·형제 창업경험	빈도	%	희망진로 (복수응답)	빈도	%
있음	70	30.4	취업	72	34.3
없음	146	63.5	창업	121	57.6
무응답	14	6.1	창작 활동	143	68.1

IV. 연구 결과

1. 신뢰성과 타당성

표 2. 측정변수 문항과 신뢰도
Table 2. Measurement variables and reliability test

변수	최초문항	최종문항	복합신뢰도	AVE
EV	3	3	0.914	0.73
AV	3	3	0.863	0.68
SV	3	3	0.840	0.64
FR	3	2	0.815	0.60
SR	5	3	0.802	0.58
CR	4	3	0.767	0.54
INT	5	5	0.759	0.6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의 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값이 0.7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변수의 신뢰성이 확보되었으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측정된 결과 0.5를 초과하고 있어 수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22].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KMO (Kaiser-Meyer-Olkin) 지수값은 0.764,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chi^2=2397.808$, $df=231$, $p=0.000$ 으로 나타나 확인적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22].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3.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변수	측정	요인 적재량	고유 값	변동 비율(%)	평균	표준 오차
INT	int3	0.897	5.51	25.04	2.487	0.089
	int1	0.867			2.817	0.084
	int4	0.846			2.757	0.090
	int2	0.801			3.443	0.083
	int5	0.781			3.809	0.079
AV	av2	0.827	2.91	13.22	3.722	0.065
	av3	0.822			3.798	0.064
	av1	0.821			3.687	0.069
SV	sv2	0.856	2.16	9.80	3.965	0.058
	sv3	0.831			3.948	0.060
	sv1	0.702			4.130	0.051
SR	sr2	0.826	1.78	8.01	2.852	0.078
	sr3	0.763			2.548	0.087
	sr4	0.723			3.130	0.085
EV	ev2	0.853	1.45	6.60	3.339	0.068
	ev1	0.746			3.687	0.058
	ev3	0.670			2.957	0.068
CR	cr1	0.776	1.18	5.37	3.261	0.083
	cr4	0.710			2.504	0.077
	cr3	0.681			2.287	0.067
FR	fr1	0.865	1.04	4.73	4.200	0.068
	fr2	0.693			3.722	0.065

또한, 연구모형의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계수와 AVE 값을 비교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E값은 상관계수의 제곱값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변수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22].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EV	AV	SV	FR	SR	CR	INT	AVE
EV	1	0.30**	0.24**	-0.06	-0.13*	0.05	0.44**	0.73
AV	-	1	0.29**	0.03	-0.13*	-0.05	0.30**	0.68
SV	-	-	1	-0.08	-0.06	-0.12	0.28**	0.64
FR	-	-	-	1	0.34**	0.30**	-0.23**	0.60
SR	-	-	-	-	1	0.43**	-0.15*	0.58
CR	-	-	-	-	-	1	-0.06	0.54
INT	-	-	-	-	-	-	1	0.61

*p<0.05, **p<0.01

2. 가설검증 결과

2.1 직접효과 분석

연구모형에서 변수 간의 직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적 가치($\beta=0.344$, $p<0.01$), 예술적 가치($\beta=0.164$, $p<0.01$), 사회적 가치($\beta=0.141$, $p<0.05$)는 모두 창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가설 H1-1, H1-2, H1-3은 모두 채택되었으므로 창업의 지각된 가치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 H1은 채택되었다. 한편 경제적 위험($\beta=-0.204$, $p<0.01$)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반면에 사회적 위험과 경력 위험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세부가설 H2-1은 채택되었으나 세부가설 H2-2, H2-3은 기각되었으므로 창업의 지각된 위험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 H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표 5. 변수 간의 직접효과 분석
 Table 5. Direct effects between variables

모형	B	S.E	β	t	p	VIF
constant	0.809	0.566	-	1.428	0.155	-
EV	0.481	0.086	0.344	5.602	0.000	1.174
AV	0.214	0.081	0.164	2.649	0.009	1.192
SV	0.223	0.096	0.141	2.320	0.021	1.159
FR	-0.266	0.080	-0.204	-3.308	0.001	1.186
SR	-0.012	0.072	-0.011	-0.168	0.867	1.337
CR	0.017	0.084	0.013	0.207	0.836	1.305

2.2 인구통계학적 차이 분석

표 6. 세부 전공별 창업의도 차이 분석
 Table 6. t-test results between majors

	음악	순수미술	공예	미디어	디자인
음악	-	0.908	0.000**	1.000	0.999
순수미술	-	-	0.000**	0.836	0.963
공예	-	-	-	0.000**	0.000**
미디어	-	-	-	-	0.997
디자인	-	-	-	-	-

*p<0.05, **p<0.01

예술계 분야는 세부전공마다 교육목표와 교육방법이 차별화되어 있으며 대학생의 학습동기 및 졸업 후 진로 계획도 다양하다. 예술계 전공 대학생의 세부 전공별로 창업의도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집단 간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예

전공이 다른 전공에 비하여 창업의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예를 제외한 전공 사이에는 창업의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형제의 창업경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형제의 창업경험 유무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 0: 있음, 1: 없음)로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형제의 창업경험을 보유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하여 창업의도가 높으며 부모·형제의 창업경험 유무($\beta = -0.175, p < 0.01$)는 창업의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모·형제 창업경험의 조절효과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tartup experience

모형	B	S.E	β	t	p	VIF
constant	1.514	0.602		2.513	0.013	
dummy variable	-0.354	0.116	-0.175	-3.046	0.003	1.071
EV	0.441	0.085	0.315	5.170	0.000	1.202
AV	0.204	0.079	0.156	2.569	0.011	1.194
SV	0.227	0.094	0.144	2.408	0.017	1.159
FR	-0.258	0.079	-0.198	-3.267	0.001	1.187
SR	-0.045	0.071	-0.041	-0.636	0.526	1.370
CR	0.067	0.084	0.051	0.794	0.428	1.355

V. 결론

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창업의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이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형제의 창업경험과 세부전공에 따른 창업의도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창업의 지각된 가치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의 지각된 위험 구성요인 중에서 재무적 위험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위험과 경력 위험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계열의 세부전공 중에서 ‘공예 전공’은 다른 전공에 비하여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형제의 창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하여 창업의도가 높으며 부모·형제의 창업경험 유무는 창업의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 결과의 시사점

경제적 가치, 예술적 가치, 사회적 가치 모두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예술전공 대학생들이 경제적 이득, 예술적 성취감, 공동체 기여 측면에서 창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무적 위험이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창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부담감이 창업의도를 약화시키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위험과 경력 위험이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창업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낮으며 창업을 진로 및 경력개발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예술분야 전공중에서 공예전공 대학생은 다른 전공의 대학생보다 창업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예품이라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업적 영역과 밀접하므로 사업기회에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창업생태계가 안정화됨에 따라 부모·형제의 창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은 창업에 대한 불안감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 대학생에 비하여 창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과 창업의도를 지각된 가치와 지각된 위험간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예술전공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적 가치를 연구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 대상과 표본 수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본 연구모형을 다양한 대학생 전공으로(공학계열, 농업계열 등) 확대하여 전공별로 유의미한 차이분석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KEF, Survey results of entrepreneurship awareness of unemployed young people of the MZ generation, Korea Enterprise Federation, 2022.
- [2] J. Y. Bian, G. Yoon, and J.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Educational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16, No. 4, pp. 112-140, 2021.
- [3] J. H. Song, “Study For Variables Affecting Startup

- Willings of Performance Art Major Students : Based on Mediate Effects By Self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16, No. 3, pp. 157–176, 2021. <https://doi.org/10.24878/tkes.2021.16.3.157>
- [4] J. H. Song, and D. S. Lee, “Effectiveness of Performing Art Major Student’s Personal Trait & Startup Supporting Program on Startup Willing,” *Journal of Acting Studies*, Vol. 22, pp. 107–127. 2021. <https://doi.org/10.26764/jaa.2021.22.6>
- [5] H. J. Kim, and J. B. Chung, “Entrepreneurship Efficacy and Subjective Norm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r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5, pp. 147–153, 2022. <http://doi.org/10.17703/JCCT.2022.8.5.147>
- [6] J. H. Kang, and N. Y. Choi, “A Study on Improvement of Support Policy for Artist Startup,”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12, No. 3, pp. 51–79, 2017. <http://doi.org/10.15815/kjcaes.2017.12.3.51>
- [7] V. Zeithmal,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Vol. 52, pp. 2–22, 1988. <http://doi.org/10.1177/002224298805200302>
- [8] M. H. Kim, and G. S. Ha,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ffice Workers and the Preparation for Start-up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22, No. 9, pp. 234–251, 2022. <https://doi.org/10.5392/JKCA.2022.22.09.234>
- [9] N. G. Boyd, and G. S. Vozikis,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8, pp. 64–77, 1994.
- [10] M. H. Seol, and J. I. Choi,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ocial Value of Start-Up – Focusing on the Start-Up Support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19, No. 2, pp. 171–188, 2021. <https://doi.org/10.24878/tkes.2022.17.2.171>
- [11] G. R. Dowling, “Perceived Risk: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Psychology and marketing*, Vol. 3, No. 3, pp. 193–210, 1986. <https://doi.org/10.1002/mar.4220030307>
- [12] S. J. Kim, J. W. Han, and S. M. Lee,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1, No. 3, pp. 49–61, 2016.
- [13] D. Kim, and J. Park, “The Effects of Cognitive Bias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valuations through Perceived Risks i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5 No. 1 pp. 95–112, 2020. <https://doi.org/10.16972/apjbve.15.1.202002.95>
- [14] D. I. Richard, *New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Homewood, Illinois, 1974.
- [15] Y. H. Kim, and D. W. Ya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Fear of Entrepreneurial Failure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 16, No. 4, pp. 1–25, 2021.
- [16] E. J.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Job Selection Factors on Entrepreneurship Efficacy and Startup Intention, Master Thesis, Hanbat National University, 2020.
- [17] J. M. Crant,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34, No. 3, pp. 42–49, 1996.
- [18] N. Krueger, M. D. Reilly, and A. L. Carsrud,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 No. 5, pp. 411–432, 2000.
- [19] C. C. Chen, P. G. Greene, and A. Crick,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3, No. 4, pp. 295–316, 1998.
- [20] S. J. Kang, and S. H. Byu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founders,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s Impa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12, No. 4, pp. 85–96, 2017.
- [21] I. Lee, M. Kang, and J. Kim,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Founders’ on Startup Success”,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8, No. 1, pp. 361–370, 2022.
- [22] C. Fornell, and D.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 39–50, 1981.